

# 한국적 상황에서 본 선교적 교회: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한 국 일

## 목 차

- I. 서론
- II. 선교적 교회론의 태동:  
서구교회의 자기반성
- III. 선교적 교회론 관점에서 본  
한국교회의 특성과 문제점
- IV. 한국상황에서 선교적 교회론 구축을 위한  
선교학적 근거
- V. 결론




**한국일** 박사는 장로회신학대학교(B.A., M.Div., Th.M.)를 졸업하였고, 독일 Heidelberg 대학교에서 박사학위(Dr.Theol.)를 받았다. 현재 장로회신학대학교 선교신학 교수로 봉직하고 있다.

■ 논문 초록 ■

현재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위기에 직면해있다는 보고서와 평가서들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성장측면에서 지역교회들이 온갖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교회성장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가에 직면하게 된다. 한국교회는 서구교회와 달리 개교회중심으로 형성되어왔다. 이것은 개교회가 든든하게 서있어야 전체 한국교회가 든든해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서구교회는 탄탄한 전체교회 구조가 지역교회를 지탱해주고 있다면, 역사가 짧은 한국교회는 지역의 개교회들이 총회와 전체교회를 유지하고 있는 특징을 띤다. 그러므로 한국교회 상황은 지역교회가 중요하며 살아있어야 한다.

지역교회 문제를 선교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해결책을 찾으려는 새로운 학문적 시도 중 하나가 “선교적 교회론”이다. 선교적 교회론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 특징을 설명할 수 있겠으나 간단히 언급하여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선교이며 선교는 어떤 활동이나 프로그램 이전에 교회의 본질적 이해로부터 출발한다”고 진술할 수 있다. 교회의 모든 활동이 교회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선교와 궁극적 목적인 하나님나라에 있다고 이해한다. 선교적 교회론에서는 선교를 더 이상 지리적 공간적 차원에서 설명하지 않고 이 세상전체가 선교현장이며 먼 해외지역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지역을 교회의 선교현장으로 인식하고 접근한다. 이런 관점에서 교회는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도 지속적으로 선교활동을 해야 하지만 그것을 위해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 선교적 교회로 존재하며 활동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연구된 선교적 교회론은 서구신학자들의 주장을 소개하는 것에 그쳐있다. 북미신학자들이 제시한 선교적 교회론은 북미교회가 처한 상황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제기된 것인데도 한국학자들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상태이다. 본 글은 서구교회와는 다른 선교를 경험하고 다른 교회특성과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 상황에서의 그 특징과 문제점, 그리고 선교적 교회를 세우기 위한 선교학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한국교회 선교적 교회론의 적합한 방향을 찾고자 한다. 

주제어

선교적 교회, 지역교회, 교회의 선교적 구조, 선교현장, 육대륙 선교

## I. 서론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신학적, 선교학적 시도가 있는데 그 중 한 주제가 “선교적 교회론”이다. 선교적 교회론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 특징을 설명할 수 있겠으나 간단하게 언급하여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선교이며 선교는 어떤 활동이나 프로그램 이전에 교회의 본질적 이해로부터 출발한다”고 진술할 수 있다. 여기에서 교회의 모든 활동이 교회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선교와 궁극적 목적인 하나님나라에 있다고 이해한다. 전통적 해외선교의 관점에서 볼 때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나 선교는 본질적으로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부터 출발하여 세계의 모든 지역과 상황을 지향한다고 주장한다. 선교는 더 이상 지리적, 공간적 차원에서 설명하지 않고 이 세상전체가 선교현장이며 교회는 먼 해외지역만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지역을 선교현장으로 인식하고 접근한다. 이런 관점에서 교회는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도 지속적으로 선교활동을 해야 하지만 그것을 위해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 선교적 교회로 존재하며 활동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선교적 교회론이 학문적 주제로 등장한 것은 북미학자들의 학문적 연합활동으로 인한 것이지만 그 운동의 흐름은 다양한 출처를 갖는다.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선교로 이해하는 운동의 출처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본 글에서는 먼저 북미학자들의 선교적 교회론의 역사적 배경과 특징을 짧게 살펴본 후 한국교회 관점에서 선교적 교회론의 특징과 의미를 탐구하고자 한다.

북미신학자들이 제시한 선교적 교회론은 북미교회가 처한 상황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제기된 것인데 한국학자들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상태이다. 구더 교수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선교적 교회론은 교회가 처한 상황

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데 한국에서 연구한 대부분의 선교적 교회론은 북미선교학자들의 입장을 소개하거나 그 말미에 적용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즉 한국교회가 처한 독특한 상황으로부터 제기된 문제의식을 깊이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교회 구조와 특성은 “기독교사회”(Christendom)를 거쳐온 서구상황이나 교회와 다르게 시작하고 존재한다. 본 글에서는 선교적 교회론의 태동과 이론적 특징을 먼저 살펴보고 서구교회와 다른 상황적, 교회적 특성을 가진 한국교회를 진단하고 우리 상황에 적합한 선교적 교회론을 위한 신학적 근거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선교적 교회론의 태동: 서구교회의 자기반성

### A. 선교적 교회론 운동의 역사적 배경: 기원과 태동

선교적 교회론이 선교학의 비중있는 테마로 부상한 것은 1980년대 북미상황에 대한 선교학자들의 반성적 성찰에서 비롯된 학문적 작업이 그 출발점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신학적 통찰을 준 사람은 영국의 선교학자인 뉴비긴(L. Newbigin)이다. 인도선교사로 35년간 활동한 그는 본국에 귀국한 후 영국이 더 이상 기독교사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세속사회가 된 것에 충격을 받고 선교사의 시각으로 영국과 유럽을 선교현장으로 인식하였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교회자신에 대한 반성과 사회변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통해 교회와 선교의 관계를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었다. 하나님의 선교, 변화한 영국사회의 문화, 이에 대한 복음의 이해가 축이 되어 교회의 선교본질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했다.<sup>1)</sup>

1) Craig Van Gelder(ed.), *The Missional Church in Context. Helping Congregations Develop Contextual Ministry* (Grands Rapids, Michigan: W.B.Eerdmanns, 2007), 2-3.

그러나 선교적 교회는 그 본래적 의미와 관점에서 볼 때 어느 특정지역이나 학자에게 제한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시대와 상황이 다르고 또 서로 직접적 영향을 받지 않았음에도 교회의 선교적 본질을 회복하는 것을 각 지역의 중요한 관심사와 선교의 주제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선교적 교회론의 연구는 서구교회라는 공통적인 배경을 두고 있는 유럽사회와 기독교의 변화에 대한 선교학적 성찰에서 시작하였다. 유럽의 기독교를 형성해왔던 기독교사회(corpus christianum)의 붕괴를 인정하는 데서 선교적 교회가 선교학자들의 담론의 주제가 되었다. 기독교사회를 지칭하는 크리스텐덤(Christendom)은 313년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면서 로마정부 체제의 인정과 보호를 받게 되어 더 이상 박해와 핍박을 받지 않게 되며 동시에 더 이상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게 된 정부와 기독교의 결합상태를 가리킨다. 이 형태의 최고점은 중세였고 종교개혁을 거치면서도 변하지 않았고 18세기 계몽주의 출현 때까지 계속되었다. 여기에서부터 교회와 국가의 공생관계가 시작되었고 이 두 실체의 동반자 관계는 유럽의 사회적 종교적 형태의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다.

크리스텐덤은 초대교회에서 볼 수 있던 역동적이고 혁명적이며 사회변혁적 영적 운동을 제도와 전통과 문화의 형태로 고착시키는 형태의 기독교로 형성시켰다. 크리스텐덤의 기독교 형태는 외형적으로는 서구사회를 기독교사회로 형성하면서 모든 영역에 기독교적 형태를 갖추어 왔으나 성서의 의미와 가치를 깊이 내면화하는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사회에서 기독교는 복음의 본질적 의미보다는 기독교가치를 표방하는 문화 형태로 전환되었으며, 교회는 선교적 역동성을 상실하고 기독교 체제유지와 보호에 주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크리스텐덤 형태의 교회에서는 선교를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이교도”를 개종하기 위한 활동으로 여겼다. 천년 이상 지탱해온 크리스텐덤의 형태와 체제는 18세기 출현한 계몽주의와 더불어 붕괴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계몽주의로부터 시작한 근대주의는 유럽에 세속주의를 확장시

켰으며 20세기 탈식민지 이후에 다종교사회의 현상은 기독교사회 형태를 완전히 붕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0세기 중반에 발생한 유럽사회의 변화를 누구보다 민감하고 분명하게 감지한 사람이 뉴비긴이다. 뉴비긴은 유럽을 떠나 인도에서 35년간 선교사로 활동한 후 귀국하였을 때 유럽이 완전히 세속사회가 되어 있는 것에 충격을 받는다. 기독교는 문화의 형태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교회는 생동감을 잃었으며 선교는 과거 기독교사회의 잘못된 유산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이런 상황에서 뉴비긴은 식민지시대의 과거로 복귀하여 크리스텐덤의 영광을 회복하려는 시도를 한다는 오해를 받으면서도 기독교제국의 부활이 아니라 유럽에서 교회의 본질 회복을 위해 유럽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전환을 가져왔다. 유럽이 더 이상 기독교사회가 아니라 이교도사회로 바뀌었으며 선교현장은 더 이상 해외 다른 지역이 아니라 바로 영국과 유럽사회 자체라는 사실을 강연과 책을 통해서 역설하기 시작했다. 뉴비긴은 무엇보다 과거와 다르게 유럽사회를 지배하는 세속주의 문화를 연구하여 변화된 현대문화 속에서 교회가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는가를 선교학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뉴비긴이 귀국 후 급속도로 세속화된 영국과 유럽의 문화를 선교현장의 문화로 인식하여 연구할 필요성을 깨달은 것이다.<sup>2)</sup>

유럽의 교회와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기독교사회를 형성해온 북미교회 상황에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던 선교학자들은 뉴비긴의 선교학적 통찰로부터 영향을 받아 북미상황에서도 기독교 이후 사회에 어떻게 교회가 선교적으로 접근하며, 교회가 자신이 속한 사회를 향해 선교적 교회로 전환될 수 있을까를 공동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 핵심을 크

2) George R. Hunsberger, "The Newbigin Gauntlet: Developing a Domestic Missiology for North America", in: George R. Hunsberger & Craig Van Gelder(ed.), *The church between Gospel and Culture. The Emerging Mission in North America* (Grand Rapids, Michigan, 1996), 3-25.

레이그 반 겔더는(Craig Van Gelder)는 세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선교를 위한 삼위일체의 신학적 토대를 세우는 것. 둘째, 선교에서 지역교회의 선교적 본질과 역할. 셋째, 지역교회가 각 교회가 처한 상황과 문화에 선교적으로 응답하는 것이다.<sup>3)</sup>

알란 록스버러(Alan J. Roxburgh)는 “선교적 교회론” 책으로부터 선교적 교회론 운동이 추구하는 방향을 핵심개념으로 간단하게 요약한다: 첫째, 교회와 선교의 관계의 역사적 이원론적 분열을 선교학과 교회론의 연결을 통해 극복한다. 둘째, 삼위일체적 선교학을 추구하는데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선교하는 하나님 인식으로부터 선교를 이해한다. 셋째, 하나님의 선교를 수용하여 기존의 교회중심적 선교로부터 하나님의 선교 패러다임으로 전환한다. 넷째, 예수의 메시지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선교의 목표로 삼는다. 다섯째,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며 교회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존재로서 교회의 선교적 본질을 이해한다. 여섯째, 선교적 해석학의 방법론을 발전시킨다. 이 방법으로 성경전체가 선교를 목적으로 기록된 것으로 이해하여 선교적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데 사용한다.<sup>4)</sup>

다렐 구더(D.L.Guder)는 선교적 교회론 연구동향을 보고하는 글에서 이 운동이 선교학자들에 의해 함께 연구되고 추구하는 공통적 방향을 여덟 개의 키워드로 설명한다: 선교적 상황(Missionaler Kontext), 선교적 도전(Missionale Herausforderung), 선교적 소명(Missionale Berufung), 선교적 증인(Missionales Zeugnis), 선교적 공동체(Missional Gemeinschaft), 선교적 실천(Missional Fuehrung), 선교적 구조(Missional Struktur), 선교적 연합(Missional Verbindung).<sup>5)</sup>

3) Craig Van Gelder(ed.), *The Missional Church in Context*, 9-10.

4) Alan, J. Roxburgh, “Introduction,” Craig Van Gelder & Dwight J. Zscheile(ed.), *The Missional Church in Perspective* (Grand Rapids, Michigan: Baker Akademik, 2011), 5-7.

5) D.L.Guder, “Missional Church” “Forschungsbericht ueber eine missiologische



선교적 교회론은 교회를 위한 또 다른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와 교회가 분리된 서구교회에서 교회의 본질을 선교로 새롭게 이해하려는 학문적 시도이다. 이것이 1980년대 북미선교학자들의 공동의 학문 활동으로 시작한 선교적 교회론 운동 즉 “The Gospel and Our Culture Network” (GOCN)의 기원으로 선교적 교회론의 주제에 초점을 맞추되 다양한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또한 함께 연구하는 시리즈를 출판하고 있다.<sup>6)</sup>

필자가 언급하고 싶은, 선교적 교회론에서 간과하고 있는 또 하나의 흐름은 세계교회협의회(WCC)를 중심으로 발전된 과정이다. 이것은 보수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선교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진행되었는데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세기 전반까지 교회중심적 선교패러다임이 지배적이었으나 1952년 빌런겐 선교대회(IMC)에서 제시한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개념의 출현 이후 선교의 주제에 대한 이해에 근본적인 전환이 발생했다. 선교는 교회의 선교 이전에 하나님의 선교로 이해하였다. 즉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고 아들은 또한 교회를 세상에 파송한다. 그러므로 선교는 교회의 선교 이전에 하나님의 선교이다. 그렇다면 선교에서 교회의 위치는 무엇인가?<sup>7)</sup>

교회는 이전에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주체로 인식하였으나 하나님의 선교에서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공동체로서 자기이해를 갖게 되었다. 즉 교회는 자신의 선교보다 먼저 일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도

Debatte in den USA,” in: Theologische Zeitschrift 66Jg 2010 Heft 2, 188-90.

6) 북미학자들의 선교적 교회론(Missional Church) 시리즈 출판물에 관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라. Craig Van Gelder, *The Missional Church and Leadership Formation* (Grand Rapids, Michigan: W.B.Eerdmanns, 2009), 5-6.

7) 선교에서 교회의 위치에 관하여 필자의 글을 참고하라. 한국일, 『세계를 품는 선교』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4), 제2장 “선교와 교회: 선교에 있어서 교회의 위치와 역할에 관한 연구,” 47-86.

록 부름받은 것을 자신의 선교적 소명으로 이해한다. 1963년 멕시코에서 개최된 선교대회는 “육대륙에서의 선교”(Mission in six continents)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 표현은 탈식민지 이후 세계선교현장의 변화를 간파한 것인데 과거에 선교현장은 비유럽권 지역으로 제한하였으나 이제는 유럽지역도 선교현장이 되었다는 선언이었다.<sup>8)</sup> 선교현장의 변화는 세계선교 구도의 변화를 동반하였다. 이전의 선교는 서구교회에서 비서구교회를 향한 일방통로였으나 “육대륙에서의 선교” 이후 선교는 세계 모든 지역에서 실현되는 하나님의 선교활동을 인식한다. 그러므로 멕시코 대회 이후 모든 지역에서 모든 교회들이 함께 참여하는 “쌍방통행” 방식의 선교를 지향한다.

이러한 선교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연구결과로 발표된 보고서가 있다. 1966년 세계교회협의회에 제출한 “선교적 교회(회중)를 위한 구조에 관한 연구”(A Quest for Structures for Missionary Congregations, 1966)이다.<sup>9)</sup> 세계교회협의회 회원교회로서 서유럽과 북미 교회가 함께 하고 아시아 교회들이 별도로 연구하여 발표한 이 보고서는 이미 현재 기독교사회(Christendom)의 내재적 특성인 반선교적 교회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면서 변화된 시대와 상황에 선교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현재 교구중심의 서구교회 구조가 변화되어야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통해 확인한 것은 선교는 하나님에게서 출발한 하나님의 선교이며,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부름받은 공동체로서 세상을 향해 파송된 공동체이며 이것을 위해 기존의 교회 중심적 패러다임인 하나님-교회-세상을 하나님의 선교 패러다임인 하나

8) Rodger C. Bassham, *Mission Theology: 1948-1975 Years of Worldwide Creative Tension Ecumenical, Evangelical, and Roman Catholic* (Pasadena: William Carey Library, 1979), 64-67.

9) *The Church for Others and The Church for The World. A Quest for Structure for Missionary Congregation*, 박근원 역, 『세계를 위한 교회. 개교회의 선교구조 연구보고서』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1); Rodger C. Bassham, *Mission Theology*, 67-71.

님-교회-세상으로 바꾸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여기에서 선교는 교회 자신의 선전이나 확장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나라를 실현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세계교회협의회는 뉴비긴이 지적한 바와 같이 20세기 후반에 나타난 세계선교현장의 변화와 무엇보다 유럽사회가 겪은 문화, 사회적 전환에 대하여 새로운 선교접근을 하였으며 이러한 운동과 선교학적 시도는 이후에 뉴비긴과 북미선교학자들의 선교적 교회론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 B. 서구교회 학자들의 선교적 교회론의 특징:

선교적 교회론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특징을 제시하고 있으나 본 글에서는 공통적 관심사로 부각된 신학적 사고의 전환에 해당하는 몇 가지 주제로 특징을 언급하고자 한다.

### 1. 교회론의 전환: 지역교회의 선교적 교회 정체성 발견

선교적 교회론은 교회자신의 이해에 변화를 가져온다. “모든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역적 표현이다. ... 모든 지역교회는 복음 전파의 우선적 책임을 지고 있다.”<sup>10)</sup> 로잔문서에서 발표한 이 내용은 교회론에 전환을 가져오는 진술로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 서구 상황을 선교현장으로 인식하고 복음증거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둘째, 지역교회의 선교적 본질과 선교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지금까지 서구교회는 선교를 해외지역만 적용하고, 선교활동은 선교회나 교단선교부 중심으로 진행해왔다. 지역교회는 선교를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교구에 속한 교인들을 목회적 차원에서 돌보며 교회를 유지하는 일을 전담해왔다. 그렇

10) *The Local Church in Mission: Becoming A Missional Congregat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 Global Context and The Opportunities Offered Through Tentmaking Ministry*. Lausanne Occasional Paper No. 39, ch. 2.

기 때문에 선교적 교회론에서 지역교회의 선교적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서구교회에서는 혁명적 전환이다.<sup>11)</sup>

오랫동안 기독교사회 체제에 익숙해져온 지역교회는 자연히 교회내부적인 일을 중심에 둘 수 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선교나 디아코니아, 대사회적 활동은 주로 전체교회를 중심으로 별도로 설치된 기구-선교부, 선교회, 디아코니아 기구-를 통하여 실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선교적 교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지역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전환해야 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교회론이나 선교론에서도 큰 공헌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기존의 지역교회가 목회적 차원에 역점을 두는 “오는 교회” 구조에 있었다면, 지역교회를 “가는 구조”로 전환함으로 지역사회에서 선교적 교회로 존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것이다.

## 2. 선교패러다임의 전환: 교회중심의 선교에서 하나님의 선교

교회중심적 선교패러다임에서 교회가 선교의 주체였다. 선교에 대한 고전적 이해에 근거하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교회가 선교의 주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교회의 위기에 직면하면서 역사적 반성과 성서적 연구를 통해 선교는 교회에 앞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sup>12)</sup> 유럽과 북미사회에서 세속주의 확산으로 인해 교

11) 교회구조면에서 서구교회는 한국교회와 큰 차이를 갖는다. 서구교회에서 교회란 지역교회가 아니라 전체교회를 지칭하는 공교회 개념이다. 독일의 경우 교회(Kirche)는 전체교회를 의미하고, 지역교회는 “지역공동체”를 의미하는 Gemeinde란 용어를 사용한다. 독일에서 지역공동체는 주일예배와 성례, 교육, 목회상담, 봉사를 위한 곳이며 교구원칙에 따라 공간적으로 단혀진 공동체구역의 제한을 통해서 조직된다. 그 목적은 모든 개신교인들을 골고루 돌보는 것이다. 볼프강 후버, 『교회』(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0), 45.

12) L. Boff, Gott kommt frueher als der Missionar. Neuevangelisierung fuer eine Kultur des Lebens und der Freiheit (Duesseldorf: Patmos, 1992). 하나님이 선교사보다 앞서 가서 일한다는 말은 현장에서 일하는 선교사들에게서 자주 들을 수 있는 고백이기도 하다.

회가 심각한 위기의식을 직면하면서 해답을 교회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찾았다. 1952년 빌링엔 선교대회 이후 선교를 위한 신학적 토대를 기독교 중심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관점으로 이동하였다.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불완전한 교회와 함께 하고 교회를 통하여 자신의 선교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았다.<sup>13)</sup>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교회성장을 위해 실용주의적 접근을 버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교회의 존재 회복과 선교적 책임을 확인하고자 했다.<sup>14)</sup>

### 3. 선교의 목표의 전환: 개인구원과 교회개혁으로부터 하나님나라 구현

선교적 교회론은 선교의 목표를 교회로부터 하나님나라로 전환한다. 기존의 교회중심적 선교패러다임은 교회자체를 선교의 목적으로 삼았다. 선교는 교회 없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성장하여 교회를 자립시키는 것이 목표였다.<sup>15)</sup> 물론 이러한 교회중심적 선교가 20세기 초반까지 교회가 없는 지역에서 중요하고 필요했던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기독교왕국의 유산을 가진 역사 속에서 변질되고 타락한 것을 본 것처럼 교회가 머린인 예수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교회성장을 목표로 삼았을 때 교회가 현실적으로 성장을 위해 실

13) Craig Van Gelder(ed.), *The Missional Church in Context. Helping Congregations Develop Contextual Ministry*, 9.

14)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는 1952년 독일 빌링엔(Willingen)에서 개최된 에큐메니칼 선교대회로부터 제시되었지만 이제는 모든 교회들과 학자들에 의하여 의미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당연한 개념으로 수용하고 있다.

15) 교회중심적 선교패러다임은 독일의 선교학의 아버지인 바르벡(G. Warneck)에 의해 정립되어 20세기 중반 하나님의 선교 개념이 등장하기까지 서구교회 선교를 이끌어 온 원리였다. 바르벡은 “기독교선교는 비기독교지역에 교회를 이식하고 조직하는 활동”으로 이해하였다. Th. Sundermeier, “Theologie der Mission,” Karl Mueller und Theo Sundermeier(Hg.), *Lexikon Missionstheologischer Grundbegriffe* (Frankfurt am Main: Dietrich Reimer, 1987), 471.

용주의 접근을 함으로써 교회의 본질에 역행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역사적 성찰과 성서적 연구를 통해 하나님나라가 모든 신앙과 선교의 궁극적 목표이며 교회는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나라의 도구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선교의 목적은 교회의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나라의 복음전파와 그 복음이 증거하는 하나님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선교학자들은 강조한다.<sup>16)</sup> 하나님나라의 회복은 그동안 복음을 개인적 차원(개인구원)과 교회적 차원(교회개혁, 성장)에 축소해왔던 왜곡된 이해를 하나님나라를 위하여 그 의미와 영역을 회복하고 전세상으로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 나. 선교현장 인식의 전환: 서구사회를 선교현장으로 인식

선교적 교회론은 세계를 지리적으로 양분한 옛 구도를 극복한다. 서구 교회는 선교를 지리적 경계선을 넘어가는 활동으로 이해해왔다. 기독교 공인 이후 서구지역은 전사회가 기독교지역이기 때문에 선교의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대신 비서구지역만을 선교현장으로 인식하고 18세기부터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다. 물론 세계선교역사를 볼 때 서구교회에 의한 지리적 경계를 넘어가는 해외선교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서구교회 중심의 지리적 의미의 선교는 20세기 중반에 와서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려웠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속주의 확산으로 인해 서구사회 자체가 선교현장이 된 것이다. 선교적 교회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해외지역만이 선교현장이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비기독교사회와 문화로 변화된 서구사회를 선교현장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교회를 그 본질로서 선교적 존재로 인식하고 모든 상황을 선교적 상황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을 선교적 그리스도인으로 이해하는 것이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근대문화에 젖어있는 서구사회에 대한 이해와 분석 그리고 선교적 접근이

16) D.L.Guder(ed.), *Missional Church. A Vision for the Sending of the Church in North America* (Grand Rapids, Michigan: W.B. Eerdmanns, 1998), 3-7.

GOCN에 참여하는 선교학자들의 과제가 되었다.<sup>17)</sup>

### 5. 선교적 회중: 평신도 이애의 전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파송되었다. 이전의 선교는 소수의 선교사를 해외지역으로 파송하고 나머지 교인들은 후원자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선교적 교회론에서는 파송받은 선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부름받고 파송된 자들로 이해된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적으로 파송받았다”는 주장에 전통적으로 시행해온 해외선교 중심의 교회와 관계자들은 문제를 제기한다. 모두가 파송받았다는 선교이해에서 특별히 해외 다른 지역에서의 선교활동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복음주의 선교권에서는 이러한 주장으로 하나님의 선교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sup>18)</sup> 그러나 대부분 선교적 교회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복음주의 신학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계선교를 무시하거나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이들은 서구교회들의 존폐의 위기상황에 직면하면서 타지역에서 선교활동을 지속해야 하지만 자신의 교회가 속한 지역도 선교현장으로 인정하고 접근해야 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선교적 교회론 운동에 참여하는 학자들은 크리스텐덤의 유산인 성직자 중심의 교회내 계층구조는 오늘의 상황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목회자와 평신도는 모두 하나님나라를 위해 주어진 다양한 은사에 따라 교회 안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동역자들이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계층구조를 폐지하고 동등한 관계에서 하

17) Craig Van Gelder(ed.), *The Missional Church in Context*, 27.

18) 복음주의 선교는 “범선교주의”를 경계하고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종족” 중심의 선교를 강조한다. Siga Arles, “Ecumenical Missiology” Challenges from an “Evangelical Perspectives,” in: Lalsangkima Pachuau, *Ecumenical Missiology. Contemporary Trends, Issues and Themens* (Bangalore: UTC, 2002), 60-62.

나눔나라를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sup>19)</sup>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선교적 교회론은 영국의 선교학자 뉴비긴의 유럽사회와 교회에 대한 선교학적 반성과 성찰로부터 시작하여, 북미선교학자들에 의하여 지역교회 차원에서 교회의 선교적 본질을 확인하고 회복하려는 학문적 운동으로 발전하여 이제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이 학문적 운동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서구교회가 직면한 위기상황에서 서구사회를 선교현장으로 보는 것과 지역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이해하는 것으로서 전세계와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의 선교적 본질과 운동을 회복하려는 데 있다.

### III. 선교적 교회론 관점에서 본 한국교회의 특성과 문제점

한국교회 상황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서구교회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교회는 선교현장에서 출발하였고, 지금은 세계선교에 어느 교회보다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교회이해는 공교회보다 지역교회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서구교회와 다른 한국교회의 이런 차이점은 선교적 교회론 관점에서 이해하고 접근할 때 서구선교학자들의 이론이나 주장이 도움이 되지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더 교수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선교적 교회론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모든 교회론은 특수한 문화적 상황 안에서 발전되었기 때문이다.<sup>20)</sup>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선교적 교회론을 정립하기 위해 먼저 한국교회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19) “Missional Leadership: Equipping God’s People for Mission,” in: D.L.Guder(ed.), *Missional Church*, 183-220.

20) D.L.Guder, *Missional Church*, 11.



### A. 선교역사 인식: 한국교회 선교의 동인

한국교회를 선교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몇 가지 주목해야 할 내용이 있다. 첫째, 한국교회는 가장 짧은 교회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선교의 중요성과 의미를 기억하고 있다. “선교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교회”이다. 이런 점에서 선교의 사건과 역사를 잊고 있는 서구교회와 다르다. 예를 들면 미국선교사들이 입국하기 이전 만주에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존 로스(J. Ross) 선교사가 은퇴 후 고향인 영국 스코틀랜드로 돌아가 출석한 교회가 에딘버러에 있다. 그러나 이 교회는 한국 유학생 목사가 알려줄 때까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것은 선교란 유럽교회에는 너무 오래 전 이야기이기 때문이다.<sup>21)</sup>

둘째, 한국교회는 다른 신생교회와 다르게 “선교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 선교가 서구의 식민지정책과 함께 하지 않았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가장 연약하던 시기에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의미와 교회, 선교의 영향을 역사적, 민족적, 실존적으로 느끼며 경험하였다. 한국교회 초기 역사를 보면 한국사회와 사람들이 얼마나 복음과 같은 소식에 목말라 있었는가를 당시 선교사들의 증언과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다.<sup>22)</sup>

셋째, 한국교회는 국가와 민족적 차원의 고난과 시련뿐만 아니라 개인

21) 예를 들면 에딘버러에 메이필드(Mayfield) 교회는 존 로스 목사님이 선교사를 은퇴하고 돌아가 장로로 봉사하던 교회인데 그 교회성도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에딘버러에서 유학하며 존 로스 목사를 연구하던 한국목회자에 의해 그 사실이 새롭게 인식되었고, 시내 공동묘지에 잊혀져 넘어져있는 묘비도 한국교회에 의하여 바르게 세워졌다. 이 사건을 통해 메이필드 교회는 선교에 대한 역사인식을 새롭게 가질 수 있었으며 한국교회와 긴밀한 관계에서 협력하고 있다.

22) 1910년 에딘버러에서 개최된 세계선교사대회에 참석한 한국에서 사역하는 미국인 선교사 사무엘 마렛의 발표문을 통해 당시 한국교회가 짧은 시간에 얼마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갈망했으며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가를 잘 묘사하고 있다. 사무엘 마렛, “복음화 사역에서 현지교회가 차지하는 위치,” 『선교와 신학』 제25집(2010), 323-37.

적 가난과 희망 없는 연약한 상황에서 출발하여 기독교가 민족과 개인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었다. 이러한 초기 한국교회의 선교경험은 한국의 근대사 속에서 민족복음화, 사회변혁의 경험을 갖게 하였으며 열정적으로 세계선교에 참여하는 선교하는 교회로의 자기정체성을 가지게 하였다.<sup>23)</sup>

서구교회는 어떤 점에서 지난 세기에 수행한 선교의 잘못된 유산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세계선교에 대하여 위축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세계선교에 본격적으로 참여한 것이 오래되지 않았고 국내의 복음화와 교회성장의 생생한 체험이 그대로 세계선교로 이어지고 있다. 서구교회 선교학자들이 주장하는 선교적 교회론에는 세계선교에 대한 의식이 약화되면서 동시에 지역사회를 선교현장으로 인식하고 교회의 본질을 새롭게 인식하면서 지역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전환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서구교회의 회복이 요청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필요한 각성이며 노력이라고 사료된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지역사회에서 선교적 교회로 출발하여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로 나아가고 있다.

전세계교회와 선교상황을 관찰할 때 한국교회는 현재 세계선교의 정신을 회복하고 실천해야 할 시대적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제3세계뿐만 아니라 1세계 즉 서구교회를 향해서도 선교적 자원과 열정을 나누어야 할 요청을 받고 있다.<sup>24)</sup> 전세계를 선교현장으로 이해하고 있는 우리 시대에 한국교회는 이러한 부름을 인식하고 세계선교의 부름에

23) 이덕주, 『한국토착교회 형성사 연구』(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1), 156-58.

24) 필자는 2005년 영국 에딘버러에서 한 학기를 머물면서 영국교회 현황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었으며 그 이후 독일교회와 스위스교회, 호주교회 등을 방문하면서 유럽교회들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유럽교회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라. Grace Davie, *Religion in Britain since 1945* (Oxford: Blackwell, 1994), 동일저자, *Europe: The Exceptional Case. Parmenters of Faith in the Modern World* (London: Darton, 2002); Friedemann Walldorf, *Die Neu-Evangelisierung Europas* (Giessen: Brunnen, 2002); 독일교회의 선교적 교회론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조하라. Hartmut Baerend, *Kirche mit Zukunft. Impulse fuer eine missionarische Volkskirche* (Giessen: Brunnen, 1999).

헌신적으로 참여하는 선교정신과 열정을 지속해야 한다.

선교적 교회와 관련하여 한국교회가 가진 첫번째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서구교회는 기독교사회가 붕괴되면서 교회의 선교적 본질과 정체성을 회복하면서 교회가 속한 국내지역을 선교현장으로 새롭게 인식하고 접근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그 태동부터 선교공동체로 존재해왔다. 이 점에서 한국에서는 서구교회처럼 교회와 선교가 분리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역교회 중심으로 진행된 선교활동은 선교를 교회개혁이나 성장을 위하여 사용된 프로그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선교적 교회 관점에서 볼 때 한국교회의 문제는 선교를 교회를 위해 도구화하는 것이다. 선교보다 교회자체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더 우선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 B. 세상관: 교회와 세상을 대립구조로 보는 이원론적 이해

한국교회는 선교초기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교회와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나누어 서로 대립관계에 세우는 경향이 있다. 이런 현상을 조장하는 배경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종교적으로 샤머니즘의 탈역사적 세계이해가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비기독교사회에서 선교초기에 신앙을 가지려면 자연히 교회 밖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정죄하고 상대적으로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서 강조하는 신앙구조를 형성한 것이다. 또한 국가적 사회적으로 직면한 암울한 상황에서 구원의 경험은 종말론적 기대를 강조하는 개인주의적 신앙을 낳았고 특히 3.1운동 실패 이후 한국교회 신앙은 더욱 탈사회적, 몰역사적 특성을 지닌 신앙으로 변해갔다. 최근에 선교와 관련하여 영적 전쟁을 교회와 세상의 대립관계로 이해하는 선교활동은 교회와 세상의 이중적 대립구조를 더욱 고착시켰다.<sup>25)</sup>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한국교회는 탈세상적, 교회중심적 신앙의

25) 영적 전쟁에 관하여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라. 박보경, “영적 전쟁(Spiritual Warfare)

특성을 형성했다. 내세의 천국을 중요시하면서 동시에 이 세상에서의 축복을 강조하는 모순적 현상의 배후에는 기복을 부르는 샤머니즘적 종교성이 크게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sup>26)</sup>

탈세상적 신앙형성의 또 다른 요인은 다종교사회 속에서 기독교신앙을 갖게 된 배경에 있다. 기독교신앙을 갖기 전 대부분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회심은 기존 종교를 버리고 떠나서 교회로 들어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은 떠남과 새로운 소속감을 통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신앙을 강조할수록 기존 종교에 대한 비판과 적대감은 그것에 비례하여 강하게 나타난다. 이것이 선교초기부터 한국교회에 자리잡은 반종교적 정서이다. 게다가 신앙생활을 영적 전투로 이해하고 전투의 대상을 타종교로 인식할 때 기독교는 다종교사회에서 다른 종교와 평화로운 공존의 관계를 갖기 어려웠다. 선교에 대하여 열정과 헌신도가 높을수록 타종교에 대하여 적대적이거나 공격적 태도를 갖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한국교회 신앙의 특성은 신앙생활을 주로 교회 안의 생활로 간주하면서 교회 밖,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 매우 서툴고 무능한 교인들을 양산하기도 한다. 때문에 지역교회는 지역사회에서 전도는 하지만 지역사회 자체에 관심은 없는, 세상에 무관심하면서 전도하는 교회의 기이한 현상을 형성하였다.<sup>27)</sup>

### C. 교회관: 교회중심적 신앙전통

세상에 대하여 대립적 특성을 지닌 교회는 자연히 교회중심적 특성을 갖게 된다. 120여년의 짧은 역사 속에서 한국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선교신학』 제28집 Vol. III/ 2011, 67-96.

26) 한국교회와 신앙 안에 스며든 토착종교 영향력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의 책을 참고하라. 장남현, 『한국문화 속의 복음』 (서울:예영 커뮤니케이션, 2010),

27) 나는 이런 교회를 “반선교적 특징과 구조를 가진 선교하는 교회”라고 지칭하고 싶다. 선교를 교회자신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해하는 전형적인 교회형태이다.

열정을 교회를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표현해왔다.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 대부분 교회중심적 관점에서 수행한 것이다. 여기에서 교회중심적이라는 형태는 교회(지역교회) 자체가 선교의 주체가 되고 목적이 되는 형태이다.

교회중심적 신앙패턴은 교회를 섬기는 일에서 잘 나타난다. 좋은 교인은 주일성수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를 잘 하는 신앙인을 지칭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가진 특징이다. 다른 신생교회들과 비교할 때 한국교회는 어떤 교회보다 모이는 교회로서의 특징이 뚜렷이 나타난다. 그러나 세상을 향해 파송된 교회의 본질에 비추어볼 때 모이는 교회만으로는 그 의미가 충분하지 않다. 모이는 교회는 지역사회로부터 분리되어 개교회성장과 강화에 목적을 두기 때문이다.

한국교회는 신앙공동체를 중요시하며 모임을 강조하는 전형적인 모이는 교회로서의 신앙특징과 전통을 세웠다. 세계선교역사를 보면 “신생교회”(younger church)는 아직 사회 속에 기독교전통과 문화가 정착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중심으로 한 원색적인 신앙생활이 특징으로 나타난다. 그 중에도 한국교회는 예외적이라고 할 만큼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앙전통을 이어왔다. 주일성수의 전통은 율법적이라 할 만큼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의 의무로 지켜지고 있다. 주일 외에 새벽기도회, 수요기도회, 금요구역예배, 철야기도회, 각 선교회모임, 사경회 및 다양한 성경공부모임 등 한국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 신앙훈련 받기를 즐겨한다. 교회 성도들의 삶이 지나치게 교회에 매여있다고 여길 만큼 교회중심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기독교에는 교회가 중요하다.

한국교회는 서구교회와 달리 개교회중심으로 형성해왔다. 짧은 교회역사로 인해 사회 속에 뿌리내린 기독교문화나 의식이 부재하며, 교회내부적으로는 전적으로 지역의 개교회에 의존해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상황은 개교회가 든든하고 강화되어야 노회와 총회가 든든하며 결과적으로 전체 한국교회가 든든해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서구교회는 탄탄한 전체교회 구조가 지역교회를 유지하고 있다면, 역사가 짧은 한국교회는 지역의 개교회들이 총회와 전체교회를 유지하고 있는 특징을 띤다. 그러므로 한국교회 상황에서는 지역교회가 중요하며 살아있어야 한다. 교회에 대한 바른 신학적 이해를 가진다면 교회에 대한 사랑과 열심은 한국교회 미래의 선교활동을 위해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것이다.

#### D. 선교관: 해외선교 중심과 프로그램 위주의 선교이해

한국교회는 선교에 열심과 헌신을 하는 교회이다. 짧은 기독교 역사에 비하여 세계선교는 경이적으로 발전되어 있다. 한국교회 역시 서구교회처럼 선교는 해외에서의 활동으로 이해한다. 이런 선교이해는 서구교회의 경험을 그대로 우리 상황에 옮겨놓은 것이다. 기독교사회를 형성해온 서구교회는 해외현장만을 선교현장으로 이해하였다. 중세에서 20세기 중반의 근대선교에 이르기까지 공식적으로 선교현장은 언제나 비서구지역인 해외현장만을 의미했다. 한국상황은 서구상황과 달리 국내현장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기독교적 영향을 받지 않은 “완전한” 선교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적 관심사에서 배제되었다. 그러므로 선교개념을 아직 지리적 차원에서 규정한다. 전도는 국내에서의 활동이며 선교는 해외활동이라는 이중적 이해를 갖는다.

한국교회 선교는 북미선교학자인 다렐 구더(D.L.Guder) 교수가 지적한 프로그램 중심의 선교관을 지향하고 있다. 해외선교 활동에 사용하는 비용은 천문학 숫자이다. 사실 해외선교를 잘 하기 위해서는 본부에서 해외선교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역할이 중요한데 한국교회는 본부에서 일하는 사람(본부선교사 제도)을 위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해외에서의 활동만을 선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해외선교 역사가 짧은 한국교회 상황에서는 이런 현상이 당연한 것으로 간주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교를 통해 한국교회가 탄생하였고 아직 선교역사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으며 그것

이 오늘날 세계선교의 동인과 자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활동적 차원에서 한국교회는 “선교적 교회”의 인식 없이 단지 교회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서 선교활동을 추구하는 “선교하는 교회”에 머물러 있다.<sup>28)</sup>

선교를 지리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선교관은 선교를 해외지역에만 적용하기 때문에 교회의 존재와 국내의 다양한 활동을 선교적 관점에서 성찰하거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 이런 현상은 지역교회가 지역사회에 대하여 폐쇄적인 반선교적 특성과 구조를 가지면서 선교하는 교회를 지향하는 모순된 선교관을 초래한다.

#### E. 교회구조: 목회자와 평신도의 계층구조

교회중심적 신앙구조는 자연히 교회 안에서의 생활을 강조하게 된다. 그것은 곧 목회자의 위치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과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서구교회와 같이 교회체계가 잘 세워진 곳에는 목회자 개인의 영향력의 차이가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교회가 정해진 예전에 따라 같은 본문으로 설교하며 교회의 전통이 교인들의 신앙을 이끌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예전의 전통이 깊지 못하고 교회의 조직이나 체계가 든든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회자의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목회자중심 구조는 교인들의 신앙을 목회자에게 의존된 구조를 형성하게 한다. 즉 한국교회 교인은 신앙생활에서 독립적 자율적이 되지 못하고 목회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유아기적 신앙상태에 머물고 있다.

목회자중심 구조는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난다. 목회자에 따라서 긍정적인 영향이 교회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만 반대로 목회자의 잘못된 인식이 교회전체를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한국교회의 직분이

28) 독일의 선교학자 겐지헨(H.-W. Gensichen)은 일찍이 선교적 교회(missionarische Gemeinde)와 선교하는 교회(missionierende Gemeinde)를 구분하여 설명한다. H.-W. Gensichen, Glaube fuer die Welt (Guetersloher, 1971), 168-85.

해는 다분히 유교의 권위주의와 계층구조의 영향을 받고 있다.

목회자중심 구조의 가장 큰 문제는 평신도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축소시킨다는 점이다. 목회자와 평신도의 관계를 계층적으로 이해하며 교회의 직분이해 역시 계층적이다. 한국교회 평신도는 초기교회부터 교회 일에 매우 열정적이며 헌신적이었다. 그러나 이 열정과 헌신을 대부분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분리된 교회관에 근거한 교회중심적 신앙관은 평신도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신앙적 실천이나 직업적 소명 같은 개혁교회의 중요한 신앙관을 교회적인 일로 축소시켰다. 따라서 좁게는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 안에서, 넓게는 세상 안에서 하나님나라를 실현하는 소명을 맡은 평신도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소명의식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비기독교문화적 배경을 가진 한국사회에서 선교적 교회론을 정립하려는 한국교회는 기독교사회 전통을 구축해온 서구교회 상황에서 선교적 교회론을 향한 접근관점 및 방식과 많은 차이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위에서 제시한 한국교회 상황과 특성에 따른 앞으로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전세계적으로 교회가 약화되는 현상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교회지상주의와 개교회주의를 극복하되 지역교회를 건강하고 바르게 세우는 선교관 및 정책을 세워야 한다. 한국교회는 지역교회 바탕에 서있기 때문에 든든한 공교회 구조체계를 지닌 서구교회와 달리 지역교회를 건강한 선교적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는 신학적, 선교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교회는 서구교회에 비하여 건강한 지역교회의 활성화를 유지하며, 동시에 교회연합과 대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공교회 체제를 강화하는 정책이 총회차원에서 있어야 한다. 한국교회의 개교회(지역교회)역량은 독특하지만 개교회차원에서 전체사회를 향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총회차원에서 개교회들이 대사회적 목회방



향을 인도해야 하며, 지역교회들이 연합하여 지역사회를 건전하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연합운동으로 협력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한국교회 안에서 신앙훈련의 가장 큰 약점은 평신도들이 훈련받는 내용이 사회적 영향력을 키우지 못하고 지나치게 영적(종교적)이며 교회 중심적이라는 것이다. 교회에서의 훈련은 교인으로 양육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직면하는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취약하다. 평신도 신앙운동에 사회적 차원이 회복되어야 한다. 실제적으로 교회 안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은사와 역량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넷째,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가 다종교, 다문화사회로 전환되어간다. 점증하는 다종교, 다문화사회 현상에 적합한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에 대한 바른 신학적, 선교학적 이해가 요청된다. 기존의 개신교 이미지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일방적이며 공격적으로 비추어졌다. 타종교와 평화로운 공존을 모색하는 선교관을 수립하며 개신교의 공격적 배타적 특성과 이미지를 바꾸어야 한다.

다섯째, 한국교회는 서구교회에 비하여 아직도 목회자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다. 이것은 선교적 관점에서 볼 때 좋은 기회이다. 건전한 목회관은 교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며 그들을 통해 지역사회와 세상을 하나님나라로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된다.

#### IV. 한국상황에서 선교적 교회론 구축을 위한 선교학적 근거

위에서 언급한 한국교회의 특성과 구조를 통해 한국교회를 진단하고 분석하면 서구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한국교회의 장점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한국교회 신앙관, 교회관, 목회관, 선교관 등을

형성한 잘못된 신학적 이해로 인한 문제들에 직면해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한국교회의 갱신과 회복을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며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한국교회의 신앙과 선교를 구성하는 신학적 관점에서 올바른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 A. 선교적 교회론 관점에서 본 구원론 패러다임

선교적 교회는 세상을 구원의 대상으로 이해한다. 선교적 교회론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은 편협한 종말론의 주장과 같이 배제하거나 탈출해야 할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현장이며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파송받은 선교현장이다. 개인구원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요 3:16)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의 틀 안에서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한국교회 신앙의 특징은 구원론을 강조하는 데 있다. 특히 종말론 관점에서 개인이 구원받는 사건을 신앙의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여긴다. 목회자의 설교에서 강조하는 부분도 개인구원, 좀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개인의 영혼구원”이다. 개인중심의 신앙관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을 개인에게 집중시켜 모든 것, 하나님조차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한다.<sup>29)</sup> 뉴비긴은 개인의 영혼구원이 개신교 선교사상을 지배한 적이 있으며 그것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신약성경의 중심을 차지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다시 말하면 개개인의 영혼을 멸망에서 구원하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선교논리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다.<sup>30)</sup> 그렇다면 개인중심적으로 형성된 편협한 구원론을 극복하고, 세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전 피조세계의 구원을 향한 패러다임 전환과 그 안에서 개인과 교회의 위치를

29) 하나님을 사람의 이익을 위해 제공하는 도구로 인식하는 기독교의 잘못된 이해에 대하여 바르트와 본혜퍼의 신학적 종교비판을 참고하라. Hans-Joachim Kraus, *Theologische Religionskritik* (Duesseldorf: Neukirchener, 1982), 4-60, 61-112.

30) 레슬리 뉴비긴,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서울: IVP, 2007), 237.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다루어야 한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하나님 중심의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의 단초를 제시한다.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사건을 개인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 대한 사랑으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증거한다. 세상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사건의 출발점이자 궁극적 목표이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온전케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창조되었을 때의 모습으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sup>31)</sup>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개인에게 발생한 구원사건은 그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행한 전피조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사건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구원사건에의 “인격적 참여”(personal involvement), 이것이 개인구원 사건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구원 경험이 하나님의 구원사건에 접촉됨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신약학자 노태성은 이 사건에 대하여 그의 본문해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인간구원에 대한 성서의 기록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창 1:26-28) 세상을 대표하는 것이지 세상을 배제한 인간만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러나 세상은 비인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 대상인 세상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한다. 인간은 세상에 속한 존재이며 세상은 인간보다 큰 실체이지만 인간은 세상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도록 책임을 수행한다. 여기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있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며,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만이 아니라 세상 전체임을 언제나 자신의 위임받은 책임성 앞에서

31) 레슬리 뉴비긴, 『교회란 무엇인가?』(서울: IVP, 2010).

깨어있어야 한다.<sup>32)</sup>

개인중심에서 하나님중심의 구원론으로 전환하면 구원받은 개인은 그 관심의 중심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사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과 그의 일에 있게 된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으로부터 개인의 세계에 몰입해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세계에 마음이 열리게 되며 그의 관심사가 자신의 관심사가 되어간다. 이것이 신앙으로 인하여 변화된 세계관이다.

선교적 교회론에서 지역사회를 향한 새로운 발견은 한국의 지역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주제이다. 개인주의적 구원론, 교회중심주의, 탈세상적 종말론 등의 편협하고 왜곡된 신학적 전제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와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과 선교의 목표라는 사실을 수용할 때,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그 사건에 신앙고백으로 이미 참여하며 또한 그 일을 위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신앙공동체인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사건에 참여하는 것을 선교적 사명으로 알게 될 것이다.

## B. 교회론: 세계를 품는 교회

교회는 바울의 표현대로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다. 여기에서 교회의 이중적 특성을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가시적 교회는 문제를 안고 있으나 교회의 머리이며 내용인 그리스도가 교회자신과 세상에 희망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경험하는 교회”로부터 “신앙하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언약에 근거해야 한다.<sup>33)</sup>

포코르니(Pokorny')는 에베소서 4장 12절을 주석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 대한 의미와 특성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준다. 포코르

32) 노태성, “시민신학을 위한 신약성서적 기초,” 미출판 강연문, 1-18.

33) 볼프강 후버, 『교회』, 39-42.

니에게 교회는 그리스도가 세상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장소이며 또한 전 피조물 안에서 그리스도의 위임을 실현하는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역할이 전우주적 배경(im kosmischen Kontext)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교회성장의 동기에 있어서 새롭게 제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성장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은 전피조세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나타내기 위한 것에 있다. 포코르니는 이러한 교회의 본질과 관련하여 교회에 주어진 특성을 몇 가지로 종합한다.

첫째,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실체이다. 세상이 그리스도의 주권아래 있으나 세상자체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엡 1:23)으로서 거룩함이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다. 둘째, 교회는 그리스도가 전피조세계의 머리(주인)인 것을 증거하고 보여주기 위해 파송되었다. 셋째, 교회의 성장과 세상을 향한 파송은 분리할 수 없다. 교회의 성장은 세상을 향한 파송을 목표로 삼아야 하며, 교회 밖을 향한 선교는 교회의 생명력 있는 존재에서만 실현이 가능하다. 넷째, 성령의 은사는 단지 영적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주어진 것으로서 구체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실현된다.<sup>34)</sup>

하나님은 세상의 구원과 존재하는 모든 것과의 화해를 위해 교회를 세상에 세우셨다. 그리고 그 교회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수여하셨다(엡 1:23, 골 1:19). 교회와 성도는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세상에 증거하고 나누기 위해 부름받았으며 이 활동이 곧 선교이다. 하나님은 이 풍성함의 비밀을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계시하였다. 바울은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하게 나타나는가를 하

34) Petr Pokorny, Der Brief des Paulus an die Epheser (Leipzig: EVA, 1992), 175-79; 김성욱, “효율적 선교사역을 위한 교회 사역론 연구,” 『1910년 에딘버러 세계선교사대회 100주년 기념 2010 한국대회 논문집』 6권 (서울: 한국연합선교회, 2011), 184-88.

나눔이 교회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고 증거한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곧 교회에 약속된 풍성함(엡 1:23)이며 이것이 세상 안에 실현되도록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세우고 그 일을 맡긴 것이 세상을 향한 교회의 선교과제이다. 교회와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이해하는 “분리된 교회론”을 극복하고 전세상으로 책임영역을 확장해야 한다. 교회는 본질상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풍성함을 전하는 선교적 존재라는 사실이 자신의 정체성이며 존재목적이다.

교회가 성장자체에 사로잡혀서 세워진 실용주의적 교회관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교회의 본질을 왜곡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한다면, 교회가 목회자 개인의 목회적 야망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이끌어간다면, 교회가 자신을 목적으로 삼아 내향적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부르심의 풍성함을 깨닫고 그것에 충실하다면, 교회가 목회자 중심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를 발견하여 세상 안에서 하나님나라를 위한 증거자가 된다면, 하나님과 갈라진 세상과의 화해와 구원의 완성을 위해 하나님이 오늘도 교회를 사용하시고, 개인구원을 평생의 목표로 삼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을 위해 이 땅에 사는 목적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꺼이 내 육체에 채우는 성도들이 훈련된다면, 이 땅에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가를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위해 교회자체가 갱신되고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대조공동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증인이 된다.

### C. 선교론(요 20:21)

한국교회에 익숙한 선교관은 교회가 중심이 되어 활동하는 선교이해이다. 그러나 역사적 경험에 대한 성찰과 성서를 통해 새롭게 발견한 것은 선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 20:21)는 본문은 선교의 본질을 가장 바르게 보여주는 내용이다. 보내시는 하나님, 보냄을 받은 아들, 함께 하는 성령의 삼위일체적 하나님의 선교로부터 교회 선교활동의 근거를 찾는다.<sup>35)</sup>

“하나님은 선교사보다 먼저 가신다”는 표현은 단지 책 제목이 아니라 선교현장에서 선교사들의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적 표현이기도 하다. 교회의 선교는 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인식과 교회의 본질이 부르심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데 대한 신앙적 응답으로 하는 것이다.

오늘의 선교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리적 차원의 이해를 넘어선다. “전도는 국내활동이며 선교는 해외활동이다”의 구분은 19세기까지 서구교회의 선교상황을 설명해주는 원리였다. 이러한 구분은 선교를 해외활동으로 규정하며 교회로 하여금 자신의 선교적 사명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 해외선교에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촉구하는 일에 기여하였다. 또한 2000년의 기독교역사를 통해 세계선교에 참여해온 선교사들의 헌신과 공헌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활동을 선교로 이해하며 교회가 지속적으로 선교활동에 참여하기를 촉구해왔다. 적어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된 이래 20세기 중반까지 선교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되고 실천되었다. 그러나 선교를 해외지역에서의 교회의 활동으로 간주하는 것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은 선교가 어느 특정지역에서 특정교회에만 주어질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기독교 선교역사에서 가장 혁명적인 전환점의 하나는 1963년 멕시코 선교대회에서 제시되었던 주제 “육대륙에서의 선교”(Mission in six continents)였다. 이 주제는 기존의 서구교회와 3세계교회, 기성교회와 신생교회,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현장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이해와 패러다임에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세계선교를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하고 접근할 것을 제시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국내뿐만 아

35) *Leslie Newbigin Missionary Theologian. A Reader Compiled and introduced by Paul Weston* (Grand Rapids, Michigan, 2006), 82-92.

나라 세계 어떤 지역에서도 수행되어야 하며, 선교는 해외지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실천하고 있는 교회의 활동들을 하나님의 선교 관점에서 설명하고 인도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으로 간주된다. 전세계가 선교현장이며 전교회가 함께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에 선교와 전도의 분리는 더 이상 적용하기 어려운 패러다임이다. 선교와 전도의 관계는 존 스토틀가 제안한 것처럼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의 관계로 새롭게 이해해야 한다.<sup>36)</sup>

교회의 선교적 차원은 전도활동 이상의 성격을 지닌다. 한국과 같은 비기독교사회에서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들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말과 함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즉 메신저 자신이 곧 메시지가 된다는 점이다. 우리는 그동안 이 사실을 소홀히 한 바 있다.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내용을 들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자체를 주목하고 보고 있다. 지역사회에 속한 교회의 존재와 매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선교의 내용이 된다. 우리의 삶자체가 우리가 전하는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되지 않으면 전하는 내용 또한 신뢰받기 어렵다. 복음전도 그 내용에 따른 삶은 분리된 두 가지가 아니라 동일한 전도의 다른 형태이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세상으로 파송된 공동체라는 것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기 이전에 그들과 함께하는 관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함께하는 것” 그것이 곧 사랑의 표현이며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가기 때문이다.

#### D. 선교적 그리스도인: 선교적 교회의 평신도론(엡 4:12)

교회의 특성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성도의 공동체로서 교회이다. 이 부분은 교회론에서 많이 언급하고 있지 않다. 바울은 교회론을 제시한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36) 데이비드 보쉬, 『세계를 향한 증거』(서울: 두란노, 1993), 30; 전도와 선교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25-33쪽에 잘 설명하고 있다.



성도의 공동체로 정의한다. 4장 11절에 교회내 다양한 직분을 구분하고 12절에서 그 이유와 목적을 제시한다. 성도를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교회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준비된 성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봉사의 일을 하는 것, 둘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다. 그런데 주석가에 따르면 봉사의 일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은 동일한 일로 기록하고 있다.<sup>37)</sup> 봉사의 일은 특정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13절의 본문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과 밖에서 봉사의 일을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는 의미이다. 세상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의미는 교회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세워 하나님나라를 위해 봉사의 일을 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여기에서 기존에 교회를 위해 성도들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온전히 준비시키는 일을 위해 교회가 세워지고 이 일이 목회자에게 위임되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은 교회 안에 성도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세상으로 흩어져 살아갈 때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세워지는 것을 함께 의미하고 있다. 목회자는 성도를 단지 교인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나라의 백성으로 세상 안에 파송하는 선교적 목회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sup>38)</sup>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의미 역시 단지 보이는 건물교회나 자신이 속한 가시적 교회를 든든하게 세운다는 의미에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는 세상 속에서 성도들의 삶을 통해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과 병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보이는 지역교회 건물로 축소될 것이다. 성도들이 교회의 지체로서 모임과 흩어지는 두 차

37) Petr Pokorný, 'Der Brief des Paulus an die Epheser', 175.

38) 선교적 목회 리더십에 관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라. D.L.Guder, "Missional Leadership: Equipping God's People for Mission," *Missional Church*, 183-220.

원을 갖는다면 교회 역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로 이해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지역교회와 함께 세상 속에 흩어져 실천하는 몸의 지체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11-12절 본문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평신도사역에 대한 확실한 성서적 근거를 제시한다.<sup>39)</sup>

성경에 기록된 교회를 향한 모든 약속과 말씀, 명령은 일차적으로 모든 성도를 향한 내용이다. 교회의 직분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주어진 제도이다.<sup>40)</sup> 종종 현실적으로 교회는 목회자와 평신도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평신도를 목회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구분과 이해는 교회의 본질을 벗어나는 것이다. 교회는 성도가 주체가 되어야 하며 목회자는 이러한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목양하기 위해 세워진 직책이다. 교회내 모든 직분은 기능적으로 세워진 것이며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주체적 결단과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목회자중심으로 운영되어왔다면 21세기는 평신도와 목회자가 각각 주어진 은사와 사명에 따라 진정한 동역관계를 이루어가야 한다.

선교현장의 확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속해 있는 삶의 현장, 일상의 삶을 선교적으로 살아갈 것을 요청한다. 다시 말하면 이제 선교는 특정지역에서 특정시간에 수행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자체를 하나님의 선교현장으로 인식한다. 선교적 교회론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차적으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교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촉구한다.

하나님나라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파송된 자로서

39) 김성욱, “효율적 선교 사역을 위한 교회 사역론 연구,” 『1910년 에딘버러 세계선교사대회 100주년 기념 2010 한국대회 논문집』 제6권, 184-88; 선교적 관점에서 에베소서 연구는 다음 자료를 참고하라. Edwin D. Roels, *God's Mission: The Epistle to Ephesians in Mission Perspective*, Doctoral Dissertation, Free University, 1962.

40) 존 스토틀, 『살아있는 교회』 (서울: IVP, 2010 4판), 83-88.

계층구조를 극복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다양한 지체로서 인식된다. 교회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성도가 교회를 위해 존재해왔다면, 선교적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성도를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종합할 때 한국교회적 상황에 적합한 선교적 교회론을 정립해야 한다. 선교적 교회론은 해외선교의 특수성과 중요성이 약화되지 않으면서도 국내 선교현장의 활동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서구교회는 선교와 교회의 분리를 극복하는 것이라면, 한국교회는 선교를 교회의 도구화하는 것을 올바른 관계로 세워야 한다.

또한 국내교회들의 활동을 선교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지원하며, 교회 안에서 일하고 있는 목회자보다 세상 안에서 활동하는 평신도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을 선교적으로 부름받은 자리임을 깨닫고 실천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 변화된 국내상황에 맞추어 국내 선교현장의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선교활동과 방향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늘날은 전세계를 선교현장으로 인식하며 선교의 지평을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

## V. 결 론

선교적 교회론은 세계상황의 요청에 대한 응답일 뿐 아니라 교회론의 회복을 가져오는 학문적 활동이다. 전세계적으로 교회가 약화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교회의 본질과 의미를 근본적으로 탐구하는 선교적 교회론 연구는 중요하다. 오랫동안 서구교회를 지배해왔던 선교와 교회의 분리현상을 극복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선교적 교회론 연구는 선교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서구교회와 한국교회는 그 형성의 역사적 배경과 구조 및 특징에서 서로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교회의 역사와 전통, 현실을 배경으로 태동된 선교적 교회론은 한국상황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물론 선교와 교회의 상관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를 통해 한국교회가 배울 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한국교회 상황에서는 지역교회를 말할 때 지역교회가 중심이 되는 교회 구조를 주목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성장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만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교회는 위로부터 지역교회를 지탱하는 서구교회와는 다르게 아래로부터 지역교회가 노회와 총회를 지원 하는 체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교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 점에서 서구교회가 교회 유지와 보전의 내향적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가는 구조”로 전환할 것을 역설하였지만, 한국교회는 “가는 구조”(go-structure)와 “오는 구조”(come-structure)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한국교회 상황에서는 “와보라”의 초대교회 선교적 구호도 아직은 필요한 시점이다. 교회 밖에서는 기독교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서구교회와 다르게 부재하기 때문이다. 한국교회의 이런 특성으로 인해 북미선교학자들이 말하듯이 단순히 흩어지는 교회, 가는 구조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모이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파송받는 교회의 전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현실적으로 한국교회는 지역교회 중심의 구조적 특징과 강점을 살리고, 지역복음화를 위한 연합과 네트워크로 복음능력의 시너지를 나타내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며 하나님나라를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참고 문헌

- Bassham, Rodger C. *Mission Theology: 1948-1975 Years of Worldwide Creative Tension Ecumenical, Evangelical, and Roman Catholic*. Pasadena: William Carey Library, 1979.
- Boff, L. Gott kommt frueher als der Missionar. Neuevangelisierung fuer eine Kultur des Lebens und der Freiheit. Duesseldorf: Patmos, 1992.
- Davie, Grace. *Religion in Britain since 1945*. Oxford: Blackwell, 1994.
- \_\_\_\_\_. *Europe: The Exceptional Case. Parameters of Faith in the Modern World*. London: Darton, 2002.
- Gensichen, H.-W. Glaube fuer die Welt. Guetersloher, 1971.
- Guder, D.L.(ed.) *Missional Church. A Vision for the Sending of the Church in North America*. Grand Rapids, Michigan: W.B. Eerdmanns, 1998.
- Hunsberger, George R. "The Newbigin Gauntlet: Developing a Domestic Missiology for North America." in: Hunsberger, George R., Craig Van Gelder(ed.). *The church between Gospel and Culture. The Emerging Mission in North America*. Grand Rapids, Michigan, 1996.
- Kraus, Hans-Joachim. Theologische Religionskritik. Duesseldorf: Neukirchener, 1982.
- Lesslie Newbigin Missionary Theologian. A Reader Compiled and introduced by Paul Weston*. Grand Rapids, Michigan, 2006.
- Lexikon Missionstheologischer Grundbegriffe. Frankfurt am Main: Dietrich Reimer, 1987.
- Newbigin, Lesslie.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서울: IVP, 2007.
- \_\_\_\_\_. 『교회란 무엇인가?』. 서울: IVP, 2010.
- Petr Pokorny', Der Brief des Paulus an die Epheser. Leipzig: EVA, 1992.
- Roels, Edwin D. *God's Mission: The Epistle to Ephesians in Mission Perspective*. Doctoral Dissertation. Free University, 1962.
- Roxburgh, Alan, J. "Introduction." Van Gelder, Craig., Dwight J. Zscheile(ed.). *The Missional Church in Perspective*. Grand Rapids, Michigan: Baker Akademik, 2011.

- Siga Arles, “Ecumenical Missiology” Challenges from an “Evangelical Perspectives.” in: Lalsangkima Pachuau, *Ecumenical Missiology. Contemporary Trends, Issues and Themens*. Bangalore: UTC, 2002, 60-62.
- Stott, John. 『살아있는 교회』. 서울: IVP, 2010 4판.
- Sundermeier, Th. “Theologie der Mission.” Karl Mueller und Theo Sundermeier(Hg.).
- The Church for Others and The Church for The World. A Quest for Structure for Missionary Congregation*, 박근원 역. 『세계를 위한 교회. 개교회의 선교구조 연구보고서』.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1.
- The Local Church in Mission: Becoming A Missional Congregat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 Global Context and The Opportunities Offered Through Tentmaking Ministry*. Lausanne Occasional Paper No. 39.
- Van Gelder, Craig(ed.). *The Missional Church in Context. Helping Congregations Develop Contextual Ministry*. Grand Rapids, Michigan: W.B.Eerdmans, 2007.
- \_\_\_\_\_. *The Missional Church and Leadership Formation*. Grand Rapids, Michigan: W.B.Eerdmans, 2009.
- Walldorf, Friedemann. *Die Neu-Evangelisierung Europas*. Giessen: Brunnen, 2002.
- 김성욱. “효율적 선교사역을 위한 교회 사역론 연구.” 『1910년 에딘버러 세계 선교사대회 100주년 기념 2010 한국대회 논문집』 6권. 서울: 한국연합선교회, 2011, 184-88.
- 노태성. “시민신학을 위한 신약성서적 기초.” 미출판 강연문, 1-18.
- 마펫, 사무엘. “복음화 사역에서 현지 교회가 차지하는 위치.” 『선교와 신학』 제 25집: 2010, 323-37.
- 보쉬, 데이비드. 『세계를 향한 증거』. 서울: 두란노, 1993.
- 한국일. 『세계를 품는 선교』.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4.
- 후버, 볼프강. 『교회』.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0.
- “Forschungsbericht ueber eine missiologische Debatte in den USA.” in: *Theologische Zeitschrift* 66Jg 2010 Heft 2, 188-90.

## ■ Abstract ■

## Missional Church in the view point of the Korean Local Church

**Kook Il Han**

Reports and assessments that the Korean churches are now facing a crisis in some ways are being suggested. Especially local churches make every effort in terms of their growth but they know how difficult a task growing churches is. The Korean churches, unlike the Western churches, have been generated, developed and grew in the each-church centered forms. It means that in case each of the churches stand firm, the entire Korean churches can be secure. The Western churches which have their long history and tradition have supported and maintained the local churches in the solid structures of the whole churches.

On the other hand, the Korean churches of their shorter history are characterized each local church to have maintained the General Assembly and the whole churches. Therefore, the local churches are importance itself and then should be alive

**Kook Il Han** graduated from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B.A., M.Div., Th.M.) and Heidelberg University in Germany (Dr. Theol.). He is a professor of Missiology at PCTS.

and kicking in the situation of the Korean churches.


“Missional church” is one of the new academic attempts to investigate the problems of the local churches and try to find the solutions of them from the missional perspectives. The Characteristics of “Missional church” can be explained from several perspectives. Simply speaking, we can state that “Reasons and purposes for the existence of the Church are the propagation of Christianity, which must start from an essential understanding of the Church prior to any activities or programs (within the local churches).” All activities of the Church are not for the Church itself, but for God's mission to redeem and restore the world and the ultimate goal, the Kingdom of God.

In “Missional church”, the Christian mission is no longer explained in the geographical and spatial level but the whole world is regarded as a mission field. So the local churches should recognize not only foreign areas which are far from them but the domestic areas which they belong to as their mission fields. There is a very emphatic precondition that, in such a perspective, the local churches should continue to be on a mission in the domestic areas which they belongs to as well as in other parts of the world, as beings of the missional churches.

So far “Missional church” which has been studied in Korea is only to introduce the Western theologians' claims. “Missional church” which has been presented by the North American theologians is to be presented from their reflection



on the situations the North American Church is confronted with, which the Korean scholars follow as they are.

In this article, I want to propose the followings. The Korean churches have experiences of the Christian mission which are different from the western churches' experiences and form different characteristics and structures from the western churches'. In such Korean situations, the appropriate direction is needed toward the missional church of the Korean Church by showing the learning principles from their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the missiological basis to build the missionary churches. 

### **Key Words**

missional church, local church, missional structure of the church, mission field, mission in six continents

